

《朴通事新註新譯(四)》*

李陸禾**

본 논문은 <朴通事新註新譯(一)>¹⁾과 <朴通事新註新譯(二)>²⁾ 그리고 <朴通事新註新譯(三)>³⁾의 후속 작업으로, 제23단락부터 제33단락까지의 주석과 번역문을 신기로 한다. 본 논문의 研究背景과 譯註의 原則 그리고 參考引用한 文獻에 관한 사항은 <朴通事新註新譯(一)>과 <朴通事新註新譯(二)>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第23話 做護膝

某甲：我這幾日差使⁴⁾出去，好姐姐⁵⁾，你做饋我一副護膝⁶⁾。

내 몇 칠 동안 차사(差使)로 나가야 하는데, 누님⁷⁾이 슬갑⁸⁾ 한 벌을

* 이 연구는 2012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光州大學校 中國學科 教授

1) 中國學論叢 第32輯(2011年)

2) 中國學論叢 第33輯(2011年)

3) 中國學論叢 第34輯(2012年)

4) 差使：(1) 指官職，職務。(2) 差遣：派遣。(3) 猶差事。被派遣去做的事情。

5) 姐姐：【夾註】漢俗呼姊曰姐姐。雖非弟妹，如遇婦女，可展斯須之敬者，亦曰姐姐，是尊之之謂。

6) 護膝：一種用厚布做成，用以保護膝部的麥筒。

7) 原文의 '姐姐'에 대한 용도는 다양하다. 친형제 또는 同族의 손위 여자를 부르는 호칭이나, 자신의 나이와 비슷한 연배의 일반 여성에 대한 존칭, 또는 자신의 아내나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의 애칭 그리고 기방의 기녀들을 부를 때도 '姐姐'의 호칭을 쓴다. 【夾註】의 설명도 비슷하다. 이에 本文 앞뒤의 문맥(把盞, 功錢, 夾及, 人事 등)으로 보아, 친형제나 부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8) 諺解에 '슬갑'으로 되어 있다. 슬갑(膝甲)은 '지난날, 추위를 막기 위해 바지위에 끼입던,

만들어주시오.

姐姐: 我沒裁帛。

나에게는 천이 없습니다.

某甲: 這的你休愁, 我有明綠紵絲⁹⁾。護膝上但¹⁰⁾使的都說與我着, 如今鋪裏買去。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오, 나에게 초록색(明綠) 비단(紵絲)¹¹⁾이 있소. 슬갑에 사용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나에게 말해주시오, 내 지금 가게로 사러갈 것입니다.

姐姐: 諸般絨線, 砌¹²⁾山子¹³⁾、吊珠兒的躡白線, 不要紙金要五錢皮金¹⁴⁾。紫官素段子¹⁵⁾一尺, 三尺白清水絹¹⁶⁾, 做帶子和裏兒。氈子, 駝毛我都有, 其餘的你如今買去。做一對護膝, 不算功錢時, 沒有五六錢銀子, 結裹¹⁷⁾不出來。

여러 가지 융 실과 산자(山子)¹⁸⁾와 구슬을 달 수 있는 굵은 흰 실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 앞쪽에 끈을 달아 허리띠에 걸쳐 맨다. 라는 국어사전의 설명을 볼 수 있다.

- 9) 紵絲: 就是“緞子”。《明代的絲綢衣料》: 「宋人吳自牧《夢梁錄》卷十八: “紵絲染絲所織, 諸顏色有織金、閃褐、間道等類。」又《吳縣志》卷五十一稱: 「紵絲俗名緞, 因造緞字。」
- 10) 但: 凡, 只要。《水滸全傳》第五回: 「哥哥既然不肯落草, 要去時, 我等明日下午, 但得多少, 盡送與哥哥作路費。」(許少峯 主編, 《近代漢語詞典》, 團結出版社, 1997年, 頁391。)
- 11) 原文의 紵絲는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단(緋緞)을 말함이다. 宋人이 지은 《夢梁錄》과 《吳縣志》를 인용한 《明代的絲綢衣料》라는 글을 보면 「紵絲는 絲(蠶絲)를 여러 색으로 염색을 한 것이고, 紵絲를 宋나라 사람들은 緞이라고 불렀으므로, 이에 緞字가 만들어 졌다. 그러므로 宋代에 이미 紵絲를 緞이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明代的絲綢衣料》: 「宋人吳自牧《夢梁錄》卷十八: “紵絲染絲所織, 諸顏色有織金、閃褐、間道等類。」又《吳縣志》卷五十一稱: “紵絲俗名緞, 因造緞字。”可見宋時已稱“紵絲”爲緞, 織緞已運用加金、閃色、彩條諸工藝。明清時期, 緞織物提花工藝高度發展, 緞已成爲高級絲織品中最流行的品種。)
- 12) 砌: 連綴。例: 砌合。【夾註】砌, 卽結成之意, 俗呼筑城曰砌城, 謂疊石而筑成之也。
- 13) 山子: 假山。《儒林外史》第四十回: 「三間楠木廳, 一個大院落, 堆滿了太湖石的山子。」
- 14) 皮金: 【夾註】未詳。《質問》云: 以厚紙上貼金, 女人綉 口 用。又云: 將金槌打如紙張之薄, 方言謂之皮金。
- 15) 段子: 緞子。
- 16) 白清水絹: 【夾註】무리풀기업시 다드마들호로 미론 김이니, 光滑緻硬, 如本國擣砧者也。卽不用糲粉而練生絹, 以石碾也。
- 17) 結裹: 了結, 終焉。明·唐順之《答王鑑川兵備書》: 「卽且携家遠去, 尋一人迹不到之山, 結裹之身。」(許少峯 編, 《近代漢語大詞典》, 中華書局, 2008年, 頁936。)

필요하고, 지금(紙金) 말고 다섯 전(錢)짜리 피금(皮金)¹⁹⁾이 필요합니다. 자관(紫官)의 하얀 비단 한 자와 백청수견(白淸水絹)이 석 자 반은 있어야 띠를 만들고 안감을 댈 수 있을 것입니다. 모전(毛氈)과 낙타털은 모두 나에게 있으니, 그 나머지는 지금 사러 가십시오. 슬잡한 쌍을 만들려면 수공 값을 따지지 않더라도, 은자(銀子) 대여섯 전(錢)이 없다면, 만들어내지²⁰⁾ 못할 것이요.

某甲: 姐姐不要說, 我也知道. 你用心做與我, 慢慢²¹⁾的把盞²²⁾. 我再央及你, 做饋我荷包²³⁾如何?

누님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난 잘 압니다. 신경을 써서 만들어 준다면, 나중에 내 술 한 잔 거하게 쓸 것입니다. 내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데, 나에게 씌주머니 하나 만들어 주시오?

18) 原文의 '山子'는 정원 등에 기이한 모양의 돌로 산의 모양, 즉 산을 축소시켜 정원 등에 설치하는 조형물로 '假山'이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山子' 무늬의 수(繡)를 말하는 것이다. 요즘 보도되는 신문(「在眞珠泉北邊新建了一座人工湖, 砌山子, 植蒼松, 別具一番特色」中國濟南日報)에도 '砌山子(山子를 쌓다; 假山을 만들다)'의 어휘를 볼 수 있다. 또한 「네이버 백과」에서 '山子'를 넣고 검색을 하면, 「청대 광서(光緒)시기 오채(五彩) 산자(山子)…」라는 설명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山子'는 각종 색실로 수를 놓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9) 原文 '皮金'과 '紙金'에 대한 설명은 어느 문헌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다만 '皮金'에 대해서 네이버에서는 【夾註】와 비슷한 「옷의 장식이나 꾸밈에 쓰려고 금을 입힌 얇은 양가죽」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紙金'에 대해서는 《조선왕실관혼상제·왕세자 관례전 복식》이라는 글에서 「공정책(空頂幘) 제식(制式)은 면(冕)과 같으나 판(版)과 유(旒)가 없고 모라(帽羅)로 싸며 지금(紙金)으로 꾸미고 양쪽에 붉은 끈이 있다」라는 글을 찾아 볼 수가 있다.

20) 原文의 '結裹'는 (1) 開支, 鎖費(지출하다) (2) 了結, 終焉(끝나다) (3) 穿着, 打扮(입다, 치장하다) 등으로 풀이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이에 전후의 문맥으로 보아 '끝나다'의 의미로 보았다.

21) 慢慢: 猶言緩一緩, 等到以後. 《二十年目睹之怪現狀》 第四回: 「至于你令伯的話, 只好慢慢再說。」

22) 把盞: 宴飲禮儀. 指宴席上端着酒壺給人斟酒, 敬酒. 元·關漢卿《哭存孝》第二折: 「見阿者一頭下馬人宅門, 慢慢的行過階痕, 見存孝擎壺把盞兩三巡, 他可也并不會沾唇。」(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32.)

23) 荷包: 荷包的前身叫「荷囊」。荷者, 負荷; 囊者, 袋也. 所謂「荷囊」, 即用來盛放零星細物的小袋. (顧學頌 王學奇, 《元曲釋詞》 卷二,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4年, 頁132): 「荷包, 是隨身佩帶的小口帶, 裝錢物用. …到清代, 官場及婚禮中也有此物的. 近代民間仍用此物, 後來把衣服上的口袋也叫做荷包, 名同而形異。」

姐姐：那的最容易，打甚麼不緊24)，你放心，我做饋你送路25)。

그건 아주 쉬운 일이니, 아무 염려 마시고, 마음 폭 놓으세요, 내 전별(錢別)의 의미로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甲某：多謝姐姐。我回來時，多多的與你人事26)。

고맙습니다. 내 돌아 올 때, 인사치레를 하겠습니다.

第24話 做甚麼功課

甲某：今日怎麼學裏不會27)去？

오늘은 어찌하여 서당에 가지 않았는가？

學生：我今日告假來。

진 오늘 결석계를 냈습니다.

甲某：你幾個學生？

학생들은 모두 몇 명인가？

學生：咱學長28)爲頭兒29)四十五個學生。

우리들 위 선배님들을 필두로 하여 마흔 다섯 명입니다.

甲某：多少學課錢30)？

학비는 또 얼마이고？

24) 打甚麼緊：猶言沒有什麼要緊。元·馬致遠《黃梁夢》第二折：「解子哥，可憐見，容俺哥哥和孩兒住一兩日去，打甚麼不緊。」

25) 送路：餞行，送行。元·馬致遠《漢宮秋》第二折：「我索折一枝斷腸柳，餞一杯送路酒，眼見得趕程途趁宿頭，痛傷心重回首。」(許少峯編，同前揭書，頁1764。)

26) 人事：指贈送的禮品。宋·許觀《東齋記事·人事物》：「今人以物相遺，謂之人事。」元·曾瑞卿《留鞋記》楔子：「你買這胭脂是做人事送人的？還是自己要用的？」【夾註】土山，俗도산。舊本作撒花。

27) 不會：未曾。與現代漢語“沒有”同。

28) 學長：對同學或前屆同學的尊稱。

29) 爲頭兒：爲首。《麗春堂》一【天下樂】：「宰臣每爲頭兒又盡忠，文官每守正直，武將每建大功。」(劉堅江藍生主編，《元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8年，頁332。)

30) 學課錢：給老師的授課錢，學費。

學生：一個月五錢家³¹⁾。

한 달에 다섯 전(錢)입니다.

甲某：你師傅是甚麼人？

스승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學生：是秀才。

秀才로 급제하신 분이십니다.

甲某：你如今學甚麼文書³²⁾？

지금은 무슨 책을 공부하고 있는 중인가?

學生：讀《毛詩》、《尚書》。

시경(詩經)과 상서(尙書)를 읽고 있습니다.

甲某：讀到那裏？

어느 대목까지 읽었나?

學生：待一兩日了³³⁾也。

앞으로 하루나 이틀이면 책을 땔 것입니다.

甲某：你每日做甚麼功課？

날마다 무슨 공부를 하지?

學生：每日打罷明鐘起來，洗臉到學裏。師傅上³⁴⁾唱喏³⁵⁾，試文書³⁶⁾的之後，回家吃飯。却³⁷⁾到學裏上，念一會，做七言四句詩。到晌午³⁸⁾，寫仿

31) 家：或作“價，介，假”。語助詞。用在數量詞後面，表示數額。《元典章·戶部下》：「在上一引鹽兩定家鈔買來。」(劉堅 江藍生 主編，同前揭書，頁135。)

32) 文書：書籍。關漢卿《蝴蝶夢》二【賀新郎】：「這三箇自小來攻考文書，他子會依文典、習禮義，那裏會定計策、廝虧圖？」(南立葵，《關漢卿戲曲詞典》，四川人民出版社，1993年，頁299。)

33) 了：完畢，完成。

34) 上：此有“那兒”、“那裏”之意。《變文集·李陵變文(95頁)》：「過失推向將軍上，漢家兵法任交虜。(此言把過失推到將軍李陵身上。將軍上，指將軍方面。)(拙稿，《老乞大語彙考》，中國語文論叢，第39輯)

35) 唱喏：一面拱揖，同時口說敬詞，謂之唱喏。也叫“聲喏”。元·王實甫《西廂記》一本三折：「你先出門兒外，等着紅娘，深深唱個喏，道小生姓張名珙字君瑞。」(許少峯 編，同前揭書，頁212。)

36) 文書：書籍；文章。宋·朱淑真《夏日游水閣》：「獨自憑欄無個事，水風涼處讀文書。」

37) 却：再，仍。《新編五代史平話·梁》上卷：「權爲看覷妻子，三年却來相取；如三年不來，即

書³⁹⁾。寫差字的, 手心上打三戒方⁴⁰⁾。

날마다 아침을 알리는 명종(明鐘) 소리가 들려오면 일어나, 세수를 하고 서당에 갑니다. 스승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고, 글에 대한 가르침 등을 받고 나서,⁴¹⁾ 집으로 돌아와 아침을 먹습니다. 또 다시 서당에 가서, 글을 좀 읽고, 칠언 시 등을 짓습니다. 한낮이 되면 글씨 쓰는 연습을 합니다. 글씨가 영망인 사람은, 손바닥에 매 세 대를 맞습니다.

甲某: 好! 好! 你休撒懶⁴²⁾, 街上閑游蕩, 越⁴³⁾在意⁴⁴⁾勤勤的學着。如今國家行仁義, 重詩書。你學的成人長大, 應科舉的做官, 輔國忠君, 孝順父母, 光顯門閥時如何? 這的便是: 立身行道, 揚名于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

참으로 잘하고 있군 그래! 자네는 게으름 피지 말고, 길거리를 싸돌아 다니지 말고, 더욱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배워야 하는 것이야. 지금 나라에서는 인의(仁義)를 행하고 학문(學問)을 중시하고 있다네. 자네가 잘 배워 성인이 되어, 과거에 응시를 하고 관리가 되서, 임금을 섬기며 보필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여, 가문을 빛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효경(孝經)에서 말하는 「立身行道, 揚名于後世,

一任改嫁。」(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562.)

38) 晌午: 正午。《紅樓夢》第八回:「至晌午, 賈母便回來歇息。」

39) 仿書: 孩童習字的描紅本。《老乞大》:「師傅上受了文書, 放學, 到家裏吃飯罷, 却到學裏寫仿書。」(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548.)

40) 戒方: 同「界尺」。也作「界方」。一種長條硬木塊, 多用爲師父責罰徒弟、先生戒飭學生的用具。《施公案》: 第四十七回「施公吩咐:『先打三十戒方再究!』」(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943)

41) 原文「試文書的之後에 대해서, 試」是「試探、'檢驗、'考查、測驗知識或技能」등의 의미로 폭넓게 쓰이고 있는 用例를 볼 수 있고, '的'는 原因이나 條件 그리고 狀況 등을 強調하는 助詞로 보았다.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에 대한 점검 또는 외운 글에 대한 점검을 받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였다.

42) 撒懶: 偷懶。

43) 越: 越發, 更加。元·王實甫《西廂記》第四本第一折:「杏臉桃腮, 乘着月色, 嬌滴滴越顯得紅白。」(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304.)

44) 在意: 加意, 用心。《水滸全傳》第六三回:「你弟兄兩個, 早早晚晚, 可緊可慢, 在意堅固管候發落, 休得時刻怠慢。」(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316.)

以顯父母, 孝之終也. (몸을 바로 세우고 도를 행하여 명예를 후세에 드날리어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효도의 끝이다.)인 것이다.

第25話 家書

甲某: 你幾時來?

언제 오셨습니까?

乙某: 大前日來.

엣그저께 왔습니다.

甲某: 我家裏書信有麼?

우리 집 서찰은 있습니까?

乙某: 稍⁴⁵⁾將來了.

제 편에 보내셨습니다.

甲某: 我父母都身己⁴⁶⁾安樂麼?

부모님들께서는 무고하십니까?

乙某: 老官人爲頭⁴⁷⁾, 大小家眷、小娃娃們, 以至⁴⁸⁾下人們都身己安樂. 貴眷稍⁴⁹⁾的十個白毛施⁵⁰⁾布、五個黃毛施布、五個黑帖裏布⁵¹⁾, 小人將來這

45) 稍: 附帶。“稍”通“捎”。順便帶。元·關漢卿《救風塵》第二折:「我這隔壁有個王貨郎, 他如今去汴梁做賣買, 我寫一封信稍將去, 着俺母親和趙家姐姐來救我。」(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465。)

46) 身己: 金、元人稱身體爲“身己”; 又作身起、身奇(呼如記)、身肌, 音近義並同。《劉知遠諸宮調》二【般涉調·沁園春】:「撲翻身己, 權時歇待。」(顧學頊 王學奇, 《元曲釋詞》卷三, 中國社會科學出版社, 頁317)

47) 爲頭: 帶頭, 起頭。元·楊景賢《西遊記》第八折:「大王, 老僧今日爲頭, 會十大保官, 保唐僧西遊去。」(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926。)

48) 以至: 直到, 一直到。《紅樓夢》第四七回:「他說什麼? 從你小嬸和你息婦起, 以至家下大大小小, 沒有不信的。」(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224。)

49) 稍: 附帶。“稍”通“捎”。順便帶。元·關漢卿《救風塵》第二折:「我這隔壁有個王貨郎, 他如今去汴梁做賣買, 我寫一封信稍將去, 着俺母親和趙家姐姐來救我。」(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465。)

50) 毛施: 毛施布。苧麻布。又稱木絲布、沒絲布, 訛而爲毛施布。

裏。

어르신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족들과, 어린 아이들, 그리고 아랫것들까지 모두가 편안합니다. 귀덕에서 백 모시⁵²⁾ 10필, 황 모시 5필, 삼베⁵³⁾ 5필을 제 편에 보냈는데, 제가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甲某: 謝你將佻多⁵⁴⁾布匹來。

51) 帖裏布: 鐵勒、麻鐵黎、苧麻。

52) 原文의 '毛施'는 우리말의 '모시(베)'의 漢子音 표기이다. 당시 元나라에서 많이 수출되었던 물품의 하나로 모시품(苧麻)로 찬 베를 말함인데, '毛施'、'襖絲布'、'苧麻布'、'木絲布'、'漂白布' 등으로도 불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당시 중국에서는 고려의 모시베가 '질기고 하얗다' 하여 한 때 유행하였다고 한다. 元代의 雜劇에서는 '물에 빨수록 더욱 하얗고 새것과 같은 高麗毛絲布'라는 말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毛絲布는 부드럽고 질겨서 빨아도 손상이 없어,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高麗의 모시를 '洗白復生'이라는 일컬었다. (作者未詳 《對我國元代與高麗的貿易研究》: 「高麗個体商販帶入元的苧布, 總量也不小。其中主要是用苧麻織成的布叫作襖絲布, 亦稱苧麻布、木絲布、漂白布等, 經久耐用, 在中國很流行。元代雜劇中就經常提到洗白復生高麗毛絲布, 毛施布柔韌耐洗, 故曰「洗白復生」, 常用來形容高麗的苧布。») 原文 '毛施'에 대하여 《鄭光本》(43쪽 주 8번)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저마(苧麻), 모시를 말한다. 모시는 쟈기풀과의 다년초(多年草)이며 그 줄기의 껍질에서 실을 만든다. '毛施'는 우리말의 '모시'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며 그 외에 '木絲'、'沒絲' 등으로 쓴다. 고려의 특산이기 때문에 중국인도 그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朴覽」上 참조)。《어초기(魚樵記)》《잡극(雜劇)》 2折의 대사(臺詞)에는 '高麗襖絲布'라고 보인다。』

53) 原文의 '帖裏布'는 삼베(大麻布)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帖裏布'에 대해서 陳高華는 元代 王貞의 《農書·農器圖譜集(十二)》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農書·農器圖譜集(十二)》에는 詹云卿의 《造布之法》를 볼 수 있다. 《造布之法》에는 '毛施布法'、'鐵勒布法'、'麻鐵黎布法'의 기록을 볼 수 있다. ... '鐵黎布'와 '帖裏布'는 音譯의 다른 이름이고, '麻鐵黎布'의 '麻'는 '麻(삼)'을 원료로 한 것이다. 詹云卿의 설명에 의하면, '毛施布'와 '麻鐵黎布'의 구분은 前者는 단색의 하얀 모시(白苧麻)를 쓴 것이고, 後者는 잡색의 老火麻를 쓴 것이다. 元代의 방직 원료로 쓰이는 麻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苧麻이고 하나는 大麻이다. '火麻'는 '大麻'의 다른 이름이다. 즉 帖裏(鐵黎)布는 大麻로 만든 것이다. 苧麻로 만든 베는 부드럽고 질기고 또한 하얗서 일반 다른 천보다는 가격이 비싸다. (這部著名農學著作的《農器圖譜集》之二十「麻苧門」, 刊載了「行台監察御史詹云卿《造布之法》」, 其中有「毛施布法」、「鐵勒布法」、「麻鐵黎布法」。... 「鐵黎布」與「帖裏布」應是同名異譯, 至于「麻鐵黎布」的「麻」是指該布用麻作原料。根據詹云卿的說法, 「毛施布」和「麻鐵黎布」的主要區別名, 前者用「一色白苧麻」, 而後者則用「雜色老火麻」。元代作為紡織原料的麻有兩種, 一種是苧麻, 一種是大麻。「火麻」則是大麻的別名。也就是說, 帖裏(鐵黎)布是用大麻制作的。苧麻績成的布, 「柔韌潔白, 比之常布又價高一、二倍。») 原文 '帖裏布'에 대하여 《鄭光本》에서는 '삼베'로 번역이 되어 있고, 同書 43쪽 주 9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帖裏布'는 전술한 왕정(王禎)의 농서(農書)에는 '毛施布法' 다음에 '鐵勒布法'과 '麻鐵勒布法'이 있다. '帖裏(tieli)'란 '鐵勒(tiele)' 또는 '麻鐵黎(matiele)'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는 '雜色苧麻', 후자는 '雜色老火麻'를 재료로 한 것이고, 둘 다 모시(毛施)보다 약간 질이 떨어진 마포(麻布)인 것 같다. 그 어원은 중국어가 아닌 것으로 보이면 현재로는 분명하지 않다. 《饒老》에서는 모두 삭제되었고, 다만 제98화에서 '帖裏布' 대신에 '黃布'로 바꿨다。』

이렇게 많은 옷감을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乙某: 今年馬價如何?

금년의 말 시세는 어떻습니까?

甲母: 今年較賤些個, 且⁵⁵⁾喂幾日賣時好, 如今賣時出不上價錢。

올해는 약간 떨어졌습니다. 잠시 몇 칠 동안 먹었다가 팔면 좋을 것입
니다. 지금 팔면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第26話 混堂洗澡

甲某: 孫舍⁵⁵⁾, 混堂⁵⁶⁾裏洗澡去來。

손(孫)형! 목욕탕⁵⁷⁾으로 목욕이나 하러 갑시다.

孫舍: 我是新來的莊家⁵⁸⁾, 不理會的⁵⁹⁾多少湯⁶⁰⁾錢。

난 이제 막 온 사람이므로, 목욕비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甲某: 我說與你, 湯錢五個錢, 撓背⁶¹⁾兩個錢, 梳頭五個錢, 剃頭兩個錢, 修脚

54) 佻多: 這麼多, 如此之多。元·缺名《舉案齊眉》第三折: 「癩癩去了也, 虧他送了俺佻多東西。」(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599.)

55) 且: 暫且。

55) 舍: 宋元時稱貴顯子弟爲“舍人”。也簡稱“舍”。《救風塵》一白: 「自家鄭州人氏, 周同知的孩兒周舍是也。」(劉堅 江藍生 主編, 同前揭書, 頁281.)

56) 混堂: 浴池。明·郎瑛《七修類稿》卷十六: 「吳浴, 甃大石爲池, 穹幕以磚, 後爲巨釜, 令與池通, 轆轤引水, 穴壁而貯焉。一人專執……池水相吞, 遂成沸湯, 名曰混堂。」按, 史學家一般認爲公共浴室自宋代始有, 稱作“浴室”。明代時人稱“混堂”。【夾註】人家設溫湯浴室處, 燕都多有之, 乃熱水爲湯, 非溫泉也。或稱“堂子”, 舊本作“湯子”。

57) 原文의 ‘混堂’은 당시의 궁중목욕탕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도 上海 지역에서는 ‘混堂’으로 부르고 있다.

58) 莊家: 此指地主的雇工。同莊客。《水滸全傳》第五回: 「徑奔庄前看時, 見數十個庄家, 忙忙急急, 搬東搬西。」(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436。)【夾註】村莊治農之人曰莊家, 謂不達時務之人。

59) 理會的: 領悟, 理解。同“理會”, “理會得”。缺名《小尉遲》第一折: 「則聽的人說, 他如今老了也。我則理會的後生可畏。」(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136.)

60) 湯: 熱水。《武王伐紂平話》上卷: 「姜皇后傳令, 來日去玉女觀行香, 各令香湯沐浴了, 安排玉輦來。」(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804.)

61) 撓背: 搓背。

五個錢，全做時只⁶²⁾使得十九個錢。我管⁶³⁾着湯錢去來。衣裳、帽子、靴子都放在這櫃裏頭，分付這管混堂的看着。到裏間湯池裏洗了一會兒，第二間裏睡一覺，又入去洗一洗，却⁶⁴⁾出客位⁶⁵⁾裏歇一會兒，梳刮頭，修了脚，涼定⁶⁶⁾了身己⁶⁷⁾時⁶⁸⁾，却⁶⁹⁾穿衣服吃幾盞閉風酒，精神更別有。你休怪，到家慢慢的與你洗塵⁷⁰⁾。

내 노형에게 설명을 하자면, 데운 물 값은 5錢이고, 등을 미는 데는 2錢, 머리 빗는데 5錢, 머리를 깎는 데는 2錢, 발톱을 다듬어주는 데는 5錢으로, 전부를 한다면 19錢이 듭니다. 내가 온탕(溫湯) 샴을 부담할 것이니 감시다. 옷과 모자 그리고 신발은 궤(櫃)에 담아, 목욕탕을 돌보는 이에게 看守 하라고 하면 됩니다. 안쪽의 욕탕에 들어가 몸을 씻고, 두 번째 방에서 한 숨 잔 다음, 다시 탕으로 들어가 씻고,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머리를 빗고, 발톱

62) 只：就。《醒世恒言》第二卷：「師父若教弟子三年嚴限，只在中原之地，度三千餘人，興俺道家。」（許少峯 編，同前揭書，頁2398。）

63) 管：包辦，承擔。元·鄭廷玉《金鳳釵》第一折：「〔正末云〕…我在壯元店中修習，等來年依舊應舉，若得了官呵，那期間還你房錢。〔店小二云〕若是這等呵，紙墨筆硯我全管。」（許少峯 編，同前揭書，頁683。）

64) 却：再，仍。《五代史平話·梁》卷上：「權爲看觀妻子，三年却來相取；如三年不來，卽一任改嫁。」（許少峯 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頁941。）

65) 客位：（1）商店店堂，接待客人的座位。《水滸全傳》第三十六回：「李立連忙叫了火家，已都歸來了，便把公人扛出前面客位裏來，把解藥灌將下去，救得兩個公人起來。」（2）接待來客的起居室。明·缺名《薛苞認母》第三折：「元來是相公！貴脚來踏賤地，略請相公客位裏坐一坐。」（許少峯 編，同前揭書，頁1049。）

66) 定：綴在動詞後，表示該動作的完成性。《清平山堂話本·楊溫攔路虎傳》：「楊青下首是楊玉，分四人坐定。楊玉看這婦人，生得意思自然，必是好人家女子。」（許少峯 編，同前揭書，頁464。）

67) 身己：金、元人稱身體爲「身己」；又作身起、身奇（呼如記）、身肌，音近義並同。《劉知遠諸宮調》二【般涉調·沁園春】：「撲翻身己，權時歇待。」（顧學頤 王學奇《元曲釋詞》卷三，中國社會科學出版社，頁317。）

68) 時：後。關漢卿《單鞭奪槊》楔子 敬德白：「等我三日服孝滿，埋殯迫薦了我主公之時，那期間我大開城門投降。」（藍立莫，同前揭書，頁251。）

69) 却：此做「就，便」。《警世通言》二八卷：「此日早起，叫蔣和看着家裏，却來到針子橋李克用家，把前項事情告訴了一遍。」（許少峯 編，同前揭書，頁1562。）

70) 洗塵：設宴招待遠方來人。《通俗編·儀書》：「凡公私值遠人初至，或設飲，或饋物，謂之“洗塵”。一般多用于招待，歡迎遠來的客人。《儒林外史》第一回：「拜謝了秦老，秦老又備酒與他洗塵。」亦叫“接風”。

을 다듬고, 몸이 좀 식은 후에, 옷을 입고 폐풍주(閉風酒)를 몇 잔 마시고 나면, 정신이 더욱 맑아질 것입니다. 서운타 마십시오, 집에 가서 천천히 노형을 위한 환영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第27話 起駕

甲商: 哥你聽的麼? 京都⁷¹⁾駕幾時起⁷²⁾?

형님께서서는 京都⁷³⁾에서의 어가(御駕)가 언제나 행차하는지 들어보셨소?

乙商: 未⁷⁴⁾裏⁷⁵⁾, 且早裏. 把田禾都收割了時, 八月初頭起.

못 들었네, 아직은 빠르지 않겠나! 추수나 끝나고, 팔월 초쯤이나 행차를 하시겠지.

甲商: 今年錢鈔⁷⁶⁾艱難, 京裏也沒甚麼買賣, 遭是我不去. 往回二千里田地⁷⁷⁾,

71) 京都: 指的是元代上都開平. 參看下註 73)

72) 起: 站起, 起身. 明·朱柏盧《治家格言》:「黎明即起, 洒掃庭除, 要內外整潔。」(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478.)

73) 原文의 '京都'는 元나라의 上都인 '開平'(現 內蒙古自治區 錫林郭勒盟 正藍旗 境內)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上都 開平은 쿠빌라이 통치시대인 中統四年(1263년) 元의 上都가 되었고, 至元九年(1273年) 燕京(지금의 北京)이 大都로 정해짐에 따라 開平은 여름의 정무를 보는 '夏都'가 되었다. 元의 황제는 더위가 시작되는 사월에 大都를 떠나 開平에서 避暑를 하고, 팔구월에 大都로 歸京하였는데, 그 길이 약 二千里 길이다. 陳高華《從老乞大、朴通事看元與高麗的經濟文化交流》:「這裏的"京都", 指的元代上都開平("京都"很可能是後來改的), 在今內蒙正藍旗境內. 在 大都與上都之間, 有四條交通路線, 來回約二千里左右. 元朝皇帝每年三月前後便由 大都出發, 前往上都避暑, 八、九月間再由上都返回大都. 上都是元朝的夏都. 皇帝一行, 動在萬人以上, 隨行馬匹及其他牲畜甚多, 沿途騷擾極大. 有的皇帝爲了表示關心百姓, 便下令在秋收以後再返回大都, 以免損壞農作物. 如元英宗時, "左右以寒甚, 請還京師. 帝曰: '兵以牛馬爲重, 民以稼穡爲本. 朕遲留, 蓋欲馬得芻牧, 民得刈獲, 一舉兩得, 何計乎寒!'" (歷史研究, 2005年 第3期)

74) 未: 無, 沒有. 《紅樓夢》第八回:「因去歲業亡故, 未暇延請高明之士, 只得暫時在家溫習舊課。」(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932.)

75) 裏: 同"呢", "哩".

76) 錢鈔: 【夾註】錢者, 金帛之名. 古曰泉, 後鑄而曰錢. 古者天降災戾, 於是乎量資幣, 權輕重, 以救民困. 代各鑄錢, 輕重不一. 鈔, 楮幣也, 始於蜀之交子, 唐之飛錢, 至元朝有中統元寶. 交鈔, 通行寶鈔之名.

到那裏住三個月，納房錢空費了。

올해는 돈도 궁하고, 京都에서는 경기도 없고 해서, 당초에⁷⁸⁾ 저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왕복 2천리 길이고, 그곳에 가서 석 달을 머물면, 방세만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乙商: 說的是, 不去的倒⁷⁹⁾快活⁸⁰⁾, 省多少⁸¹⁾盤纏⁸²⁾。出外時端的⁸³⁾是愁殺⁸⁴⁾人, 家貧不是貧, 路貧愁殺人。

맞습니다, 가지 않는 것이 속상하지 않고, 많은 비용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요. 밖에 나가면 정말 근심이 많습니다, 집에서 없는 것은 없는 것은 아니고, 밖에 없는 것이야말로 정말 고생이 심한 것이지요.

第28話 教場射箭

某甲: 咱們教場⁸⁵⁾裏射箭去來。

77) 田地: 路程, 道路。元·鄭廷玉《忍字記》第一折:「貧僧不是凡僧, 我是個禪和尙, 兩頭見日, 行三百里田地哩。」(《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1991年)按: 應斷句爲「咱們往前行的十里來田地」, 可以解爲「我們往前行着十里來地(路程)」也。

78) 原文「遭是我不去」에 대한 諺解는 「마초아 이내 가디 아니홀샤」이라고 하여 「遭是」를 「마침」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遭」 또는 「糟是」에 대해 그 어느 자료에서도 「마침」 등으로 쓰이고 있는 용례를 찾아 볼 수는 없다. 다만 소리가 비슷한 「早是(蚤是)」가 「已是」, 「幸虧」, 「當初」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이에 「遭是」를 「早是(蚤是)」의 通假로 보았다. 《編譯朴通事》本과 《朴通事新釋諺解》本에서는 여전히 「遭是」로 표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79) 倒: 反而。

80) 快活: 愉快, 開心。

81) 多少: 許多, 好多。此作「偏義復詞」。明·湯顯祖《牡丹亭》二十【紅衲襖·前腔】白:「小姐不在, 春香姐也鬆泛多少。」此「多少」即「多」意。爲反義詞偏用之例。(王學奇 王靜竹 撰著, 《宋金元明清曲辭通釋》, 語文出版社, 2002年, 頁333。)

82) 盤纏: 生活費用, 日常開銷。元·李行道《灰闌記》一折:「因爲貧難, 無以度日, 要尋我妹子, 討些盤纏使用。」(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402。)[夾註] 길혜 여러 가지로 쓰는 것: 《質問》云: 盤纏纏繳供給之物, 如供給服食應用金銀財帛之類。今按, 盤纏二字, 取義源流未詳。

83) 端的: 果眞, 確實。《水滸全傳》第二回:「哥哥不可小觀了他, 那人端的了得。」(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489。)

84) 殺: 放在動詞後, 表示程度深。字也作「煞」, 作「熬」。元·缺名《舉案齊眉》第一折:「哎, 屈沉殺三尺龍泉萬卷書, 何也波如, 非浪語。」(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647。)[夾註] 愁殺, 謂人有愁之甚而可至於死, 甚言其愁之極也。

우리 연무장에 활이나 쏘러 갑시다.

乙某: 這般時, 咱們幾個去?

그러면, 우리가 몇 명이나 가야합니까?

甲某: 咱(86)十數個弟兄(87)們去時勾了。一邊五個家(88)分着射。

우리 열 두어 명의 친구들이 가면 충분할 것입니다. 한 편에 다섯명씩 나누어 쏘는 것입니다.

乙某: 咱賭甚麼?

무얼 걸지요?

甲某: 咱賭一個筵席(89)着。

술 한 상 내기를 합니다.(90)

乙某: 那般着。你借饋我包指(91)麼?

그렇게 합니다. 활각지(92)를 빌려줄 수 있습니까?

甲某: 饋你濟機(93)。

제 활각지를(94) 빌려드리겠습니다.

- 85) 教場: 操演兵士의 廣場, 演武場。《水滸全傳》第十二回: 「教軍政司告示大小諸將人員, 來日都要出東郭門教場中去演武武藝。」(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926。)
- 86) 咱: 我們。《醒世恒言》第三十卷: 「那人帶醉說道: '咱這裏沒有甚麼義士。」(許少峯 編, 同上揭書, 頁926)
- 87) 弟兄: 對同輩、同伙或對下屬表示親切的稱呼。《水滸傳》第九十回: 「今者拜辭還京, 某等衆弟兄此去前程如何, 萬望吾師明彰點化。」
- 88) 家: 人。關漢卿《拜月亭》一【混江龍】: 「許來大中都城內, 各家煩惱各家知。」
- 89) 筵席: 宴飲活動時食用的成套肴饌及其台面的通稱。古稱酒席。
- 90) 原文의 '筵席'은 '宴會'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宴會', '酒會'는 결혼 피로연과 축하연 등의 잔치를 말하는 것이고, '筵席'은 그러한 잔치에 필요한 격식에 맞춰 차려낸 음식상을 말할 것이다.
- 91) 包指: 【夾註】《音義》云: 혈거피。
- 92) 原文 '包指'에 대한 諺解는 '혈거피'이다. '혈거피(혈걸지)'는 '각지'의 옛말로, 활을 쏘 때에 시위를 잡아당기기 위하여 엄지손가락의 아랫마디에 끼는 뿔로 만든 기구이다. 角指(각지), 활각지 등으로도 불린다.
- 93) 濟機: 【夾註】《音義》云: 뿔로 명근 혈거피 ㄱ툃 것. 今按, 漢人或牛角或鹿角爲之, 形如環, 着於拇指, 所以鈎弦開弓。
- 94) 原文 '濟機'에 대한 用例를 찾아 수가 없다. 다만 「쇠뿔 또는 사슴뿔로 만들고, 그 형태는 고리 모양으로 엄지손가락에 착용하여 활시위를 끌어당긴다」라는 【夾註】의 설명을 볼 수가 있다. 【夾註】와 本文의 내용으로 보아 '包指'와 '濟機'는 모두 '각지'의 다른 이름으로 보인다. 中國 古代에서는 각지를 '鞞(섭)'이라고 하였는데, 近代(清代)이후 현재까지 俗稱 '扳指'

乙某：咱各自用心盡氣力射。

우리는 각자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활을 쏘시다.

丙某：哥你放心，我獨自個射時也贏的。

형님께서서는 마음 놓으세요! 나 혼자 쏘도 이길 수 있습니다.

乙某：難道⁹⁵⁾，難道!

설마 그렇게야 되겠어!

丙某：你說甚麼話? 張弓有別力，飲酒有別腸⁹⁶⁾。

무슨 말씀이시요? 활 쏘는 힘 따로 있는 법이고, 술 배 또한 따로 있는 법입니다.

第29話 養孩好難

甲某：你姐姐⁹⁷⁾曾⁹⁸⁾幾時喫粥來?

라고 부르고 있다. '鞞'에 대한 《說文》에는 「鞞，射決也。所以鉤弦，以象骨，韋繫，着右巨指。(상아나 뼈로 만들어 끈으로 묶어 오른손 엄지에 부착하여, 활을 쏘다)」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다음은 <陝西出土的漢代玉鞞形佩(劉雲輝)>에서 발췌한 것으로 '鞞(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볼 수 있다. 「古代的 '鞞(섭)'은近代에 이르러 '扳指'라고 불리는 것으로 활을 당기는 도구이다. 옛사람들은 오른손 엄지로 시위를 당길 때, 손가락의 피부에 마모나 물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드러운 가죽으로 손가락을 싸매었으므로 그래서 鞞(섭)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시위를 당길 때 부드러운 가죽이 활시위와 얽히는 등의 문제가 생겨, 결국은 엄지손가락에 뼈나 銅 또는 玉 등으로 손가락의 모양에 따라 오목형의 '鞞(섭)'을 만들었다(古代的鞞(she)相當于近代的扳指，是射箭張弓鉤弦的用具。古人用右手拇指拉弦，爲了避免手指被勒傷，最早以柔革裹指，故稱爲鞞。由于柔革放弦，黏着不爽利，遂在拇指上套骨管，或用銅、牙、玉以作鞞，并順應手指的曲度，做成特殊的凹面型。<摘自，收藏 2009年 第1期>.)」 따라서 古代的 '鞞'이 近來에는 俗稱 '扳指(扳指兒)'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朴通事'時代에서는 깍지를 '包指' 또는 소리를 假借(通假)하여 '濟機'로 표기하여 하지 않았을까?

95) 難道：難說，說不定。《兒女英雄傳》第十六回：「安老爺說：這也難道。明日只怕還得大大的費番唇舌。」(許少峯 編，同前揭書，頁1341.)

96) 酒有別腸：指酒量大小，與身材高矮無關。宋·司馬光《資治通鑑·後晉高祖天福七年》：「他日，又宴，侍臣皆以醉去，獨維岳在。曦曰：『維岳身甚小，何飲酒之多?』左右或曰：『酒有別腸，不必長大。』」

97) 姐姐：對一般年輕女子的稱號，也可以稱號妻子。

98) 曾：表達疑問語氣，可以譯作“可”。董志翹 蔡鏡浩《中古虛詞語法例釋》：「汝若是九度見黃

자네 안사람은 언제부터 죽을 먹었는가?

乙某: 恰⁹⁹)三日也。

이제 막 삼일 되었습니다.

甲某: 小厮兒¹⁰⁰)那¹⁰¹)女孩兒?

사내인가 계집아이인가?

乙某: 一個俊小厮。

잘 생긴 사내입니다.

甲某: 好! 好! 只¹⁰²)怕產後風、感冒。說與你姐姐, 好生小心着¹⁰³), 休吃酸恬腥葷等物, 只着¹⁰⁴)些好醬瓜兒就¹⁰⁵)飯吃。滿月¹⁰⁶)過了時, 喫的¹⁰⁷)不妨事¹⁰⁸)。

잘되었습니다. 산후풍(產後風)¹⁰⁹)과 감기가 걱정이 되는군요. 부인에게 조심하시라고 하시고, 시고 달고 그리고 비린 것과 누린 것 등을 먹지 말고, 오직 좋은 오이장아찌를 가져다 반찬으로 해서 밥을 먹도록 하게나. 한 달이 지나서, 먹는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河清, 曾知天上地府事否?(《大唐三藏取經詩話·入大梵天王宮第三》) “曾知”不是問曾經可知, 因為下文申猴行者介紹的是當時大梵天宮發生的事。(吉林教育出版社, 1994年, 頁55。)

99) 恰: 剛剛, 恰才。

100) 小厮兒: 男孩, 兒童。元·白仁甫《牆頭馬上》: 「自離洛陽, 同小姐到長安七年也, 得了一雙兒女, 小厮叫做端端, 女兒喚做重陽。」(許少峯 主編, 同前揭書, 頁1265。)

101) 那: 語氣助詞, 用在選擇問句全面一個選擇項的後面。《元典章·戶部十》: 「這言語是實那是虛?」

102) 只: 就。

103) 着: 語氣助詞, 表示命令、祈使。

104) 着: 此作“拿, 將”。

105) 就: 下, 搭着吃。如: 炒雞蛋就飯。又如: 花生仁就酒。

106) 滿月: 嬰兒出世滿一個月。

107) 的: 同“得”。動詞後綴。關漢卿《調風月》一【寄生草】: 「燕燕子理會得龍盤虎踞燕齊, 誰會甚兒婚女聘成秦晉?」(藍立葵, 同前揭書, 頁61。)

108) 不妨事: 沒關係, 不成問題。《水滸全傳》第十一回: 「林冲被打, 掙扎不得, 只叫道: “不妨事, 我有分辦處。”」(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40。)
【夾註】《產書》云: 分娩未滿月, 恣食生冷粘硬果菜肥膩魚肉之物, 當時雖未覺有損, 滿月之後, 即成蓐勞。《質問》云: 產婦一個月不出門, 不生理, 只補養本身; 一月之後出門, 又喫喜酒。今按, 喜酒者, 賀生兒之宴。

109) 原文的‘產後風’은 출산 후에 관절이 아프거나 몸에 찬 기운이 도는 한의학상의 증세로, 출산 후 산후조리를 잘못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滿月日老娘¹¹⁰來，着¹¹¹孩兒盆子水裏放着。親戚們那水裏金銀珠子之類，各自¹¹²丟入去。纔只洗了孩兒，剃了頭，把¹¹³孩兒上搖車¹¹⁴。

한 달이 되는 날 외할머니¹¹⁵가 오셔서, 아이를 물이 담긴 대야에 내려놓습니다. 친척들 개개인은 물속에 금은보석들을 던져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아이를 씻기고, 머리를 깎고¹¹⁶, 아이를 안아¹¹⁷ 요람에 올려놓습니다.

買將¹¹⁸車子來，底下鋪蒲席，又鋪氈子¹¹⁹，上頭鋪兩三個襦子¹²⁰，着¹²¹孩兒臥着，上頭蓋着他衣裳，着¹²²縹子¹²³拴住了。把溺¹²⁴葫蘆

110) 老娘：(1) 稱呼自己的母親。《古今小說》第二卷：「金孝不勝歡喜，便轉擔回家對老娘說道：『我今日造化，拾得許多銀子。』」(2) 稱外婆。《紅樓夢》第七四回：「你是司棋的老娘，他的表弟也該姓王，怎麼又姓潘呢？」(3) 接生婆，穩婆。《金瓶梅詞話》第三十回：「月娘道：『你起來，休要睡着，只怕滾壞了胎。老娘請去了，便來也。』」(許少峯 編，同前揭書，頁1116。)【夾註】《音義》云：伏侍生產的婦人，今按，俗呼「穩婆」。

111) 着：此作“把，用”。元·朱凱《黃鶴樓》第三折：「這廝好無禮也，他着言語譏諷我。」(許少峯 編，同前揭書，頁2452。)

112) 各自：獨自，自管自。

113) 把：拿；持。

114) 搖車：即搖籃。《元朝秘史》卷一：「帖木真九歲時，帖木侖方在搖車中也。」

115) 原文的‘老娘’은 ‘산파’ 또는 ‘어머니’ 그리고 ‘나이 먹은 여인의 자칭’ 등의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앞뒤의 문맥으로 보아 ‘외할머니’라고 번역을 하였다.

116) 原文‘滿月剃頭’에 관해서 지금도 중국에서는 아이에게 머리를 깎아주는 의식을 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취학 전의 남자아이의 경우, 뒤통수 몇 가닥의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현대에서도 이러한 풍습을 이야기 하고 있는 “做滿月(梓客, 2006年02月)”라는 글에서 발췌한 글이다. (滿月這一天，還有一項重要禮儀要舉行，那就是剃滿月頭。剃滿月頭要請當地最有名望的師傅，首先要包上一個紅包，然後燒一盆熱水，煮幾個雞蛋。剃頭時，師傅先用煮好的雞蛋在小孩的頭上滾一遍，然後才開剃。剃時要從前往後刮，直到後腦處留一撮胎毛不剃，這撮胎毛一直要留到小孩成人後方可剃去——不過現在很少有人這樣做了。)

117) 原文‘把孩兒上搖車’에서의 ‘把’字는 이른바 處置式 ‘把字文’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이에 ‘把’字는 ‘拿’ 掌握; 控制’ 등의 의미를 가지므로, 앞뒤의 문맥으로 보아 아이를 ‘손으로 잡아서 옮겼다’라는 의미로 보았다. 이에 ‘안아서 요람에 올려놓았다’로 번역을 하였다.

118) 將：語義虛化，置於單音節動詞之後，構成該詞的雙音節形式，表示動作的繼續或完成。如：般將(搬運)、唱將(演唱)、持將(持)、取將(收取)等。

119) 氈子：獸毛蹂壓而成的厚片狀制品。多指用于鋪墊的塊片氈。《兒女英雄傳》第二四回：「正中當地又設着一張八仙桌，上面鋪着猩紅氈子。」

120) 襦子：小兒尿布。【夾註】《音義》云：襦襦，接替污穢之物。今按，襦即縹子，襦即襦子。《音義》混而一之，誤矣。但《譯語指南》亦呼縹子，混稱爲襦襦。未詳是否襦子 否。

正着那窟籠¹²⁵⁾裏放了, 把尿盆放在地下。見孩兒啼哭時, 把搖車搖一搖便住了。

요람을 사와서는, 아래에 부들자리를 깔고, 또 모전(毛氈)을 덮고, 그 위에 또 두세 장의 기저귀를 깔 다음, 아이를 눕혀서, 제 옷으로 덮어 주고, 보로기(아이를 동이는 끈)로 동입니다. 오줌을 받는 조롱박을 구멍에 바로 놓고, 요강을 그 밑에 놓습니다. 아이가 울거든 요람을 흔들면 곧 울음을 그칩니다.

做滿月¹²⁶⁾, 老娘上¹²⁷⁾賞銀子、段匹。百歲日¹²⁸⁾又做筵席, 親戚們都來慶。把¹²⁹⁾孩兒又¹³⁰⁾剃了頭, 頂上灸。那一日, 老娘上又賞。

태어난 지 한 달이 되면 잔치를 하는데, 할머니로부터¹³¹⁾ 銀자와 비

121) 着: 此作“教, 讓”。

122) 着: 此作“用, 使”。元·缺名《度柳翠》一折:「清早晨間一個和尚在俺門前擦倒, 我着兩句言語嘲撥他, 看他也省的麼?」(許少峯 主編, 同前揭書, 頁1466.)

123) 縶子:【夾註】보로기, 卽襁也。《廣韻》云: 束兒衣也, 闊八寸, 長一尺, 用約小兒而負之行者。

124) 溺: 排泄小便。後來作“尿”。如: 溺盆子(小便盆), 溺壺(小便壺)。

125) 窟籠: 洞; 孔。

126) 做滿月: 在嬰兒出生滿一個月時, 舉行某種儀式或慶祝活動, 謂之做滿月。清·顧張思《土風錄》卷二:「兒生一月, 染紅蚤祀先, 曰做滿月。」

127) 上: 此有“那兒”、“那裏”之意。《變文集·李陵變文(95頁)》:「過失推向將軍上, 漢家兵法任交虜。(此言把過失推到將軍李陵身上。將軍上, 指將軍方面。)(拙稿, 《老乞大語彙考》, 中國語文論叢, 第39輯)

128) 百歲日: 俗稱“百歲”。嬰兒出生後第一百天。【夾註】子生一七日, 謂之一臘; 一歲, 謂之百啐。《質問》云: 初生孩兒以百日爲百歲日, 六親皆以禮賀之, 主人設宴館待。

129) 把: 給, 與。《檮杌萃編》第十三回:「就叫案目叫這小三兒來, 把他幾角錢, 叫他叫賽紫雲在樓梯口等他, 有話說。」(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9.)

130) 又: 再。

131) 原文「老娘上賞銀子段匹」에 대해 언해에서는 「老娘에게 은과 비단을 상하고」라고 풀이하고 있다. 여기서의 ‘上’은 ‘人稱代詞+上’의 형태로, 《朴通事諺解》에서는 단 한 차례의用例을 볼 수 있고, 《原本老乞大》에서도 「俺漢兒人上學文書來的上頭, 些小漢兒言語省的有。(저는 중국인에게서 글을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국어를 알고 있습니다.) 《原本老乞大》第二話」에서 딱 한 차례의用例을 볼 수가 있다. 앞의註 127)번에서처럼 인칭대사(명사) 뒤에 붙는 ‘上’은 ‘那兒’、‘那裏’의 의미를 가지므로, ‘老娘那裏’의 의미는 ‘老娘에게서’ 또는 ‘老娘쪽에서 상을 내렸다’로, 즉 ‘집안의 어른인 할머니가 손자(아이엄마)에게 상을 내렸다’로 풀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 「我多與你賞錢(第31話)」、「家中沒甚的事時賞你,(第48話)」、「上位賞了一百錠鈔(第67話)」 등에서처럼 ‘산파(老娘)에게 상을 내렸다’라고 해석이 되려면, ‘(把)銀子段匹賞與老娘’與老娘賞銀子段匹 등과같이 ‘老娘’이 동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

단을 상으로 내리 십니다. 백일에 또 잔치를 여는데, 그때는 친척들이 오셔서 축하를 합니다. 아이에게 머리를 깎아주고, 정수리에 땀을 땀 주지요. 그날 할머니는 또 상을 내리십니다.

甲某: 如今自妳¹³²那尋¹³³妳子?

모유입니까 아니면 유모를 구했습니까?

乙某: 尋一個好婦人妳, 一個月二兩妳子錢, 按四時與他衣服. 養孩兒好難!

좋은 유모를 구했는데, 젖을 먹이는 값으로 한 달에 두 냥을 주어야 하고, 철마다 옷을 해줘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甲某: 可知¹³⁴難裏! 懷耽¹³⁵十月, 乳哺三年, 推乾就濕¹³⁶, 千辛萬苦, 養大成人. 因此上, 古人道: “養子方知父母心”.

당연히 어렵지요! 배속에서 열 달, 젖 먹여 삼년, 진자리 마른자리 같아 누이고, 천신만고 끝에 장성을 시킨다. 그래서 옛말에 “養子方知父母心(자식을 낳아 키워봐야 비로소 부모의 심정을 안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지요.

第30話 留下拜帖

甲某: 好大舍¹³⁷, 那裏下¹³⁸着裏?

132) 妳: 奶。又作“妳子”。關漢卿《五侯宴》一 趙太公白:「他將有乳食的妳子與他孩兒喫, 却將那無乳的妳子與俺孩兒喫。」(藍立葵, 同前揭書, 頁186。)

133) 尋: 覓, 雇。《金瓶梅詞話》一百二十回:「我聽見你爹對你奶奶說, 替他尋一丫頭與他。」(許少峯 主編, 同前揭書, 頁1223。)

134) 可知: 自然; 當然。《水滸傳》二二回:「我可知要見他哩。」(吳士勳 王東明 主編, 《宋元明清百部小說詞語大辭典》, 陝西教育出版社, 1992年, 頁557。)

135) 懷耽: 懷孕。關漢卿《胡蝶夢》第三折:「十月懷耽, 乳哺三年。」

136) 推乾就濕: 把乾的地方讓給幼兒, 自己睡在濕的地方。形容撫育孩子的辛勞。同“推燥居濕”。

137) 大舍: 宋·元以來對官僚富家子弟稱“舍”。大舍, 猶言大少爺, 大公子。元·無名氏《劉弘嫁婢》第四折:「老員外喜也, 大舍得了嬰童解元也。」

138) 下: 歇宿, 收留。《警世通言》卷二十四:「想你這個模樣子, 誰家下你?」(高文達 主編, 《近

노형께서는 어디서 묵고 계십니까?

乙某: 小人在那東角頭¹³⁹⁾堂子¹⁴⁰⁾間壁¹⁴¹⁾下着裏。

저는 저 동쪽 길모퉁이¹⁴²⁾에 있는 목욕탕 바로 옆에 묵고 있습니다.

甲某: 板闌門¹⁴³⁾那甚麼門?

널문¹⁴⁴⁾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입니까?

乙某: 朝南開着一個小牆門便是。

남향으로 문을 낸 작은 쪽문(小牆門)¹⁴⁵⁾입니다.

代漢語詞典》, 智識出版社 1992年, 頁847.)

139) 角頭: 集市。元·無名氏《謝金吾》三折白:「如今朦朧奏過聖人, 將他兩個押赴市曹殺壞了。…來到這角頭上鬧市。」(劉堅 江藍生 主編, 同前揭書, 頁139。)**【夾註】**《音義》云: 東南西北往來人烟湊集之處。今按, 角頭即通達達道要會之衝, 備力求直之人叢集之所。然漢俗呼市廛亦曰角頭, 謂販市者必指角頭而去, 故云爾。

140) 堂子: 澡堂。元·楊顯之《瀟湘雨》第二折:「我去那堂子裏把個澡洗。」**【夾註】**即混堂, 釋見上。

141) 間壁: 隔壁。

142) 原文‘角頭’에 대해 詞典마다 다르게 풀이되고 있다. 許少峯 主編, 《近代漢語詞典》에서는 ‘角落’라고 풀이하고, 藍立寅 編著, 《關漢卿戲曲詞典》에서도 ‘角落, 頭, 後綴’로, 劉堅 江藍生 主編 《元語言詞典》에서는 ‘集市’로 풀이하고 있고, 龍潛庵 編著, 《宋元語言詞典》에서는 ‘指某一方位, 處所’로 해석되고 있다.

143) 板闌門: 小木板門。板, 木片。闌, 門, 小門。《漢書·樊噲傳》:「排闌直入(推開門就進去)。」闌門, 小門。《人民文學》1981年第4期:「其他官員和隨從則從兩側的闌門步入。」(摘自 百度網)

144) 原文의 ‘板闌門’에 대하여 諺解에서는 ‘널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板闌門’은 판자로 만든 작은 문이다. 참고로 백두산 天池 북쪽의 한 곳이 터져서 물이 흘러나가 화구뢰(火口瀨)이곳을 달문(闌門)이라고 한다. 天池의 물은 여기서부터 흘러내려가 장백폭포를 이루면서 협곡을 만든다. (天池亦稱爲‘闌門’。闌, 本意是小門的意思。天豁峰和龍門峰之間有一缺口, 神似大自然造就的‘小門’, 天池水從此流出。- 摘自 百度網)

145) 原文의 ‘小牆門’에 대해서 중국 北京 등 큰 지역의 거주지역을 가보면, 골목이 벽들의 담장으로 쪽 이어지면서 간간히 담장문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작은 담장문은 중국 사람들은 ‘小牆門’이라 하고, 행세거나 하는 집안은 비교적 큰 규모의 大門을 만든데, 이것을 ‘大牆門’이라고 한다. 다음은 중국 인터넷에서 찾아본 ‘牆門’에 대한 자료이다. 중국의 ‘牆門’文化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許多事物, 寧波人都有自己獨特的稱呼。就跟把小棠稱作‘下飯’一樣, 對普通的民宅, 如院子, 寧波人就稱作爲‘牆門’, 意思十分的明白, 所謂‘牆門’就是被牆圍起來的一道道門, 也就是各家各戶。在筆者的記憶中, 原先的寧波是由一個個牆門組成的, 無論是大街還是小巷, 牆門是一個挨一個, 如筆者居住過的一條短短的小巷 — 桑園巷, 三十三個門牌號, 就是三十三個大牆門, 小的牆門內住五六戶人家, 大的牆門住的人家則多達二十幾戶。大牆門、小牆門之稱, 也是因居住人家多少而來。大家‘濟濟一門’, 真是好熱鬧, 好溫馨, 稱得上是‘其樂融融’。一開始, 寧波的牆門, 其牆內雖有許多的門, 想必只是一戶人家的。而牆門的建造者, 也是根據其資金的實力和人口狀況來確定牆門的規模的。一般殷實的人家, 且人口又多, 大多建造二層樓的牆門。如筆者居住了

甲某：不知道下處¹⁴⁶，不會得望¹⁴⁷去，大舍休怪。

묵고계신 곳을 몰라서, 찾아가 뵈지를 못했는데, 노형께서는 너무 허물치 마십시오.

乙某：不敢。哥，小人¹⁴⁸昨日貴宅裏留下一個拜帖¹⁴⁹來¹⁵⁰，見來麼¹⁵¹？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노형께서는 제가 어제 덕에 명함을 한 장 남기고 왔었는데, 혹시 보셨는지요?

甲某：是，小人見來¹⁵²。小人每日不在家，大舍夜來¹⁵³乾¹⁵⁴走了一遭。改日回望大舍去，慢慢的¹⁵⁵說話。

네! 보았습니다. 제가 날마다 집에 있지 아니하여서, 노형께서 어제

近二十年的那個老牆門，就是二層樓的。朝南的房間一字排開，樓上七間，樓下七間，分東西樓梯，前有大明堂(即院子)，後有小明堂。大明堂東西兩廂，又各有小明堂和扇子間(即廂房)，在大門的西邊，還有一排廚房和柴房。據筆者所知，這牆門原先屬於一戶人家，後又分屬兄弟兩人，東西各居一半，而大明堂即為共用，到筆者搬入之時，牆門內已成了一個擁有十六戶人家的大家庭。除了房東一戶之外，其餘十五戶都是“外來戶”。(〈寧波的老牆門，魏信德，2007年，長江日報〉)

146) 下處：在外的住所；宿舍。《警世通言》三二卷：「平日間有了杜家，連下處也沒有了，今日就無處投宿。」(許少峯 主編，同前揭書，頁1223。)

147) 望：造訪，探望。

148) 小人：說話人在稱對方為“官人”、“哥哥”、“舍”時，自己往往稱“小人”，這個稱呼含有謙恭之意。

149) 拜帖：拜訪別人時所用的名帖。

150) 來：在此表示曾經發生過甚麼事情，略同“來着”。《寶娥冤》二【采茶歌】白：「情願我招了罷，是我藥死公公來。」(劉堅 江藍生 主編，同前揭書，頁160。) 助詞“來”當然是由動詞“來”產生的。原來是做了某事之後來到現在的場所的意思，後來“來”成了附加的，就把重點放在過去會做某事上了。「師父何處飲來？」…“來”在元明時一直使用。他凭“沒有”構成疑問句，瞬間動詞表示持續需要加“着”，這些方面和“來着”一樣。(談藪，廣記173)(太田辰夫 著 蔣紹愚、徐昌華 譯，《中國語歷史文法》，頁362。)

151) 來麼：語氣助詞，用于疑問。關漢卿《四春園》四 官人白：「兀那廝，是你殺了王員外的梅香來麼？」(藍立莫，同前揭書，頁152。)

152) 來：此作語助詞，略同現代漢語中的啊、呢、啦、哩。

153) 夜來：(一)晚上，昨夜。指晨起之前的夜間。(二)昨天。即黑夜之前的那個白天。(許少峯 主編，同前揭書，頁1358。)

154) 乾：白白地，徒然；沒來由，不需如此而如此。(蔣禮鴻，《敦煌變文字義通釋》，上海古籍出版社，1981年，頁377。)

155) 的：此作結構助詞，與現代漢語結構助詞“地”同。曹廣順《近代漢語助詞》：「從現有的材料看，“地”作為助詞出現的比“底”要早，在魏晉南北朝文獻中，已經有了用助詞“地”的例子，…宋代以後“底”“地”的另一個變化，是由于語音的演變，這兩個助詞逐漸改寫作的”。…元代中葉，“的”最終取代了“底”，同時，也出現了“的”取代“地”的例子。元代以後，在明清小說中，代替“地”的“的”就比比皆是了。」(語文出版社，1995年，頁125。)

헛걸음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찾아뵙고, 차근차근 말씀이나 나누시지요.

第31話 打弓

甲某: 醜厮你來。叫將¹⁵⁶⁾那斜眼的弓匠王五來。

애야!¹⁵⁷⁾ 사팔뜨기 궁장(弓匠) 왕오(王五)를 불러 오너라.

醜厮: 王舍來了。

弓匠 王氏가 왔습니다.

王五: 相公¹⁵⁸⁾。

부르셨습니까?

甲某: 王五來¹⁵⁹⁾, 我有些央及¹⁶⁰⁾的勾當¹⁶¹⁾, 叫的你來。

156) 將: 語義虛化, 置於單音節動詞之後, 構成該詞的雙音節形式, 表示動作的繼續或完成。如: 般將(搬運)、唱將(演唱)、持將(持)、取將(收取)等。

157) 原文 '醜厮'에 대해 '더러운 놈'이라고 諺解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더러운 놈' '추악한 자식' 등으로 번역할 수는 있으나, 호칭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말에 지금도 그 쓰임을 볼 수 있는 '개똥'이라는 호칭을 '狗屎'라고 번역할 수 없고, '먹쇠'나 '돌쇠'니 하는 명칭도 '소처럼 잘 먹는 놈' 등으로 풀어 쓸 수는 없다고 본다. 近代 漢族의 人名인 경우, '小名'과 '大名'으로 나누어 부름을 볼 수 있다. '小名'은 어렸을 때 쓰는 이름으로 그 작명법도 다양한데,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祥瑞로운 글자를 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福童、安童、喜童' 등이 그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동물의 이름을 취하는 것으로 '驢哥、驢兒、頑驢' 등이 그러한 경우인데, 前者는 '福、喜'字 등을 써서 아이의 앞날을 祝願하는 것이고, 後者는 동물처럼 무럭무럭 잘 자라라는 의미인 것이다. 또한 당시의 사람들은 숫자로 '小名'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를 들어 元代 末期에 蜂起를 한 張士誠의 小名은 '九四'이고, 그의 동생 張士德은 '九六'이라고 불렀다. 이와 같은 예는 《朴通事》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바로 本文의 '弓匠王五'가 바로 그러한 例일 것이다. '醜厮'가 貶稱으로 쓰이는 경우는 《元典章》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息州(今河南息縣)民趙醜厮、郭宣傳'彌勒佛當有天下', 被元官殺害」 「段醜厮, 河南行省(今河南)人 … 托稱神異, … 被官府發覺, 段醜厮及信從并知情不首者遭處斬刑, 妻子籍沒入官。」 등이 그것이다. 本文에서의 '醜厮'는 자신이 부리는 奴隸를 낮추어 부르는 것으로 보았다.

158) 相公: 對當官人或有身份的人的尊稱。

159) 來: 此作語助詞, 略同現代漢語中的啊、呢、啦、哩。

160) 央及: 此作'煩勞, 麻煩'. 元·缺名《朱砂擔》第二折: 「小二哥, 我央及你, 你明日早起, 來與我做個證見。」(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161.)

161) 勾當: 事情. 也作'穀當'. 《水滸全傳》十六回: 「你這村鳥理會的甚麼! 到來只顧吃嘴, 全不曉得路途上的勾當艱難, 多少好漢被蒙汗藥麻翻了!」

이보게 王五! 내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자네를 오라고 하였네.

王五: 相公有甚麼話說與小人麼?

相公께서는 소인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某甲: 你打饋我兩張弓如何?

자네가 나에게 활 두 자루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는가?

王五: 你要打幾個氣力¹⁶²的弓?

힘이 얼마나 되는 활을 만드시려고요?

某甲: 京都¹⁶³綜殿¹⁶⁴西教場裏, 官裏¹⁶⁵前面桎柳¹⁶⁶射弓的多有。你打十個氣力的一張, 七、八個氣力的一張。你來¹⁶⁷這弓面上鋪筋¹⁶⁸, 將來着我看了之後, 樺一樺。你用心做的好時, 我多與你賞錢。

京都의 別殿인 綜殿에 있는 西教場에서, 황제를 모신 앞에서 버드나무를 세워두고¹⁶⁹ 활을 쏘는 이들이 많이 있다네. 자네는 백이십 근(斤)짜리¹⁷⁰ 장력(張力)의 활 한 자루와 칠팔십 근(斤)짜리 장력(張

162) 氣力: 【夾註】《音義》云: 弓強弱之力, 重十二斤曰一個氣力。今按, 舊本以斗石爲重, 《續綱目》“兩石弓”註: 三十斤爲鈞, 四鈞爲石, 重百二十斤也。

163) 京都: 指的是元代上都開平。

164) 綜殿: 應是“櫻殿”。亦作“棕殿”。元上都別殿的通稱。【夾註】作殿閣, 用椽木皮苫蓋, 以爲遊御之所。舊本作“棕毛殿”。櫻, 通作“棕”。

165) 官裏: 猶官家。指皇帝。宋·周密《武林舊事·乾淳奉親》: 「是日官裏大醉, 申後, 宣道遙子入便門, 升輦還內。」又, 元·王伯成《貶夜郎》第一摺: 「官裏御手親調醒酒湯。」【夾註】呼皇帝爲官家, 亦曰“官裏”。五帝官天下, 三王家天下故耳。

166) 桎柳: 【夾註】《質問》云: 端午節日, 赴教場內, 將三枝柳植之三處, 走馬射之。《歲時樂事記》云: 武士軍校袞昔 柳于擊場。今按, “袞昔”字, 卽作ㄩ音, 而“ㄩ”字韻書不著, 唯《免疑雜韻》內音“ㄩ”, 卽與“挿”字音義同。《總龜》云: 端午日, 武士射柳爲鬪力之戲, 各科強弱相敵。此作“桎”, 恐誤。

167) 來: 句中襯詞, 用以強調: 猶麼。金仁杰《追韓信》第二折: 「丞相道將咱來不住的趕, 韓信則索把程途盼。」(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091。)

168) 鋪筋: 製作傳統弓時的一個程序, 卽用竹子制成弓胎子上, 外貼牛角, 內貼牛筋曰“鋪筋”。“筋”, 肌肉: 肌腱或附在骨頭上的韌帶。

169) 原文‘桎柳’에서의 ‘桎’은 ‘중을 치다, 이끌다’의 의미를 가지므로, 誤字로 보인다는 ‘夾註’의 설명을 볼 수 있다. 《翻譯朴通事》에서는 ‘ㄱ’로 되어 있지만, ‘夾註’에서의 설명처럼 辭書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ㄱ’字의 경우, ‘夾註’에서의 설명처럼 ‘聳; 豎’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翻譯朴通事》의 ‘ㄱ’字의 쓰임이 타당한 것 같다. 諺解에서 ‘桎柳射弓’을 ‘버들 곳고 활쏘느니’라고 해석하고 있어, 이를 따랐다.

170) 原文의 ‘十個氣力’를 ‘백이십 근(斤)짜리’ 등으로 환산하여 번역한 것은, ‘夾註’의 풀이를 따를 것이다. 현재 쓰이고 있는 활(國弓)의 장력(張力) 단위를 西洋의 양궁(洋弓)에서 처

力)을 가진 한 자루를 만들어주시게나. 활 등에 쇠 힘줄을 붙이고 나면, 가져와 나에게 보여준 후, 자작나무 껍질을 입히게. 자네가 마음을 써서 잘 만들면, 내 상급을 많이 줄 것이네.

王五: 不敢相公, 豈可¹⁷¹⁾望賞? 小人奉承的便是¹⁷²⁾, 只願的爲頭兒¹⁷³⁾射着. 당치도 않습니다, 어찌 상급을 바라겠습니까? 소인은 그저 뜻을 받자를 뿐이고, 오로지 남보다 앞서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第32話 借錢文書

甲某: 秀才¹⁷⁴⁾哥, 你與我寫一紙借錢文書.

형님! 형님께서 나에게 돈을 빌리는 문서 한 장을 써주십시오.

秀才: 拿紙墨筆硯來, 我寫與你. 這文契¹⁷⁵⁾寫了, 我讀與你聽:

종이와 먹과 붓 그리고 벼루를 가져오시게나, 내 써주겠네. 증서를 다 썼소, 내 읽을 터이니 들어보시오.

京都在城¹⁷⁶⁾積慶坊住人趙寶兒, 今爲缺錢使用, 情願立約與某財主處, 借到細絲官銀¹⁷⁷⁾五十兩整¹⁷⁸⁾。每月利息幾分, 按月送納, 不致拖欠¹⁷⁹⁾。

림 '파운드'의 명칭을 쓰고 있다.

171) 豈可: 怎能, 怎麼好. 敦煌變文《晏子賦》:「黑羊之肉, 豈可不食? 黑牛駕車, 豈可無力? 黑狗趁兇, 豈可不得? 黑鷄長鳴, 豈可無則?」(許少峯 主編, 同前揭書, 頁1478.)

172) 便是: 助詞. 用于句末, 表示肯定語氣. 關漢卿《陳母教子》一二 末白:「我得了官, 母親喜歡便是, 可怎生道怪我?」

173) 爲頭兒: 此作「帶頭」, 「起頭」. 元·楊慶賢《西遊記》第八折:「天王, 老僧今日爲頭, 會十大保官, 保唐僧西游去。」(許少峯 主編, 同前揭書, 頁1926.)

174) 秀才: 泛指讀書人.

175) 文契: 立下的字據, 執凭. 范受益《尋親記》:「奴家丈夫被官差役, 缺少使用, 特來府上要借兩錠生錢, 有一紙文契在此, 院君請收了。」(許少峯編, 同前揭書, 頁1937.)

176) 在城: 本城. 指所居的城市. 《清平山堂話本·錯認尸》:「在城衆安橋北首觀音庵有一個商人, 姓喬名俊, 字彥杰, 祖貫錢塘人。」(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315.)

177) 細絲官銀: 卽紋銀. 銀錠上有細紋道. 是一種成色高的銀子. 《古今小說》第四卷:「那尼姑貪財, 見了這兩錠細絲白銀, 眉眼笑道:『大官人, 你相與是誰? 委我幹甚事來?』」(許少峯 主編, 同前揭書, 頁1990.)

178) 整: 【夾註】無零數之謂.

其銀限至下年幾月內，歸還數足。如至日無錢歸還，將借錢人在家應有直錢物件，照依時價準折¹⁸⁰無詞。如借錢人無物準與，代保人一面¹⁸¹替還。恐¹⁸²後無凭，故立此文契爲用。某年、月、日，借錢人某，同借錢人某，代保人¹⁸³某，同保人某等押。

경성(京城)안 積慶坊에서 사는 사람 趙寶兒은, 쓸 돈이 궁하여, 債權者 아무개에게 계약을 맺고 細絲官銀 50兩을 빌렸다. 매달 이자는 몇푼(分)을, 매달 납입하고, 연체하지 않기로 한다. 빌린 細絲官銀 50兩은 내년 아무 달 안에, 전액 갚기로 한다. 만일 날짜가 되어도 갚을 돈이 없는 경우, 債務者 집안의 값나가는 물건을, 시가에 따라 변상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만일 채무자가 변상할 물건이 없다면, 보증인 측에서 대신 갚기로 한다. 사후에 근거로 삼고자 이 차용증을 작성한다.

某年 某月 某日

채무인 아무개 押

秀才: 空處寫大吉利, 或寫餘白兩字着. 將錢來贖¹⁸⁴將契去.

빈자리에는 ‘大吉利’라고 쓰거나, 혹은 ‘餘白’이라고 쓰시오. 돈을 가져와 갚고 이 차용증을 가져가시오.

179) 拖欠: 久欠不還。《元典章新集·吏部·給由》:「諸人侵盜失陷短少, 減駁拖欠, 應合追陪(賠)。」

180) 準折: 抵償, 折算。元·尚仲賢《三奪槩》:「那鞭休道十分的正着, 則若輕輕地抹着, 敢教你睡夢裏驚急列地怕道曉。」(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447。)

181) 一面: 一方。《漢書·賈誼傳》:「夫辟者一面病, 靡者一方痛。」

182) 恐: 亦作“恐怕”。估量之詞。怕會, 可能。《小孫屠》三出:「一來趁時玩賞; 二來恐遇得個情人, 亦是天假其便。」(龍潛庵 編著, 《宋元語言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85年, 頁716。)

183) 保人: 同保證人。《鴛鴦被》楔子:「既是這等, 我借與他十個銀子, 着他立一紙文書, 你就做保人, 着他那小姐也畫個字, 久後好還我債。」

184) 贖: 用財物換回抵押品。也作“贖當”。

第33話 買馬

甲某：那裏有賣的好馬？

어디에서 좋은 말들을 파는지요?

乙某：東角頭牙家¹⁸⁵去處¹⁸⁶廣¹⁸⁷，敢¹⁸⁸知道，你打聽一打聽。你待買甚麼本事的馬？

동쪽 길모퉁이의 거간꾼이 말이 넓어, 잘 알고 있을 것이니, 한 번 알아보세요. 어떠한 말을 사시려고 하십니까?

甲某：我要打圍¹⁸⁹處¹⁹⁰騎的快走的馬。

사냥을 할 때 타는 말 빠른 말입니다.

乙某：你拿着多少銀子買？

銀子を 얼마나 가지고 사려고요?

甲某：我有三十兩銀子。

나에게 銀子 서른 냥(兩) 있습니다.

乙某：那裏有一個土黃馬，好本事¹⁹¹，只腿跨¹⁹²不開。一個黑鬃青馬快¹⁹³走，只是¹⁹⁴前失。一個赤馬生的十分可喜，沒本事。你自馬市裏揀¹⁹⁵

185) 牙家：爲賣買雙方撮合從中取得傭金的人。也說“牙子，牙人”。《元典章·戶部五》：「哈迷委會先已商議定價，令牙人估計前後房院實直。」(劉堅 江藍生 主編，同前揭書，1998年，頁370。)

186) 處：用于詞尾，表示地點，所在。《水滸全傳》三九回：「宋江聽罷，搔頭不知痒處，只叫得：『苦，我今番必是死也。』」(許少峯 主編，同前揭書，頁171。)

187) 廣：多，衆。元·高文秀《黑旋風》第一折：「泰安神州謊子極多，哨子極廣，怎生得一個護臂跟隨將我去方可。」(許少峯 編，同前揭書，頁689。)

188) 敢：准定，包管。明·劉兌《嬌紅記》上卷：「害相思自小兒何曾慣，這證候服不得千金散，九轉丹。」(許少峯 編，同前揭書，頁2383。)

189) 打圍：打獵。因須多人合圍，故稱。宋·孔平仲《孔氏談苑·吳長文使虜》：「吳長文使虜，虜人打圍无所獲，忽得一鹿，請南使觀之。」

190) 處：用于詞尾，表示時間，其時。王實甫《西廂記》三本三折：「我也不瞧破他，只請他燒香。今夜晚妝處比每日較別，我看他到其間怎的瞞我？」(許少峯 主編，同前揭書，頁171。)

191) 本事：本領；能耐。《西遊記》第三一回：「大聖，神通大，妖魔本事高。」

192) 跨：抬腿向前或向旁移動越過。

193) 快：能，善于。元·白仁甫《梧桐雨》第四折：「這待詔手段高，畫的來沒半星兒借錯，雖然是快染能描，畫不出沉香亭畔回鸞舞，花萼樓前上馬嬌，一段兒妖嬌。」(許少峯 編，同前揭書，頁1069。)

着買去。

그곳에는 등이 거뭇한 누런 말(土黃馬)이 있는데, 영리하게는 보이나, 다리를 쭉쭉 뻗질 못합니다. 또 갈기 검은 충이말(黑鬃靑馬)은 잘 달리기는 하나, 앞다리 절고요, 또 붉은 빛 털을 가진 한 마리(赤馬)는 잘 생기는 하였지만, 좀 우둔하게 보입니다. 그러니 직접 마장(馬場)에 가서 골라서 사시지요.

甲某: 市裏尋不着好馬。一個栗色白臉馬, 有九分膘¹⁹⁶, 好轡頭¹⁹⁷, 點¹⁹⁸的細。只是小行¹⁹⁹上²⁰⁰遲, 有些槽疥, 也有些撒²⁰¹蹄。

(마장에 다녀와서)마장(馬場)에서도 좋은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밤색 이마와 뺨이 흰색인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몸에 딱 맞는 고삐²⁰²에, 輕快한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걸음걸이가 좀 느리고, 비루(음)²⁰³가 좀 있고, 발굽도 좀 끄는

194) 只是: 就是。《西遊記》46回: 「我師父乃至誠君子 … 說不會, 只是不會, 君子家, 豈有謬乎?」(《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1991年.)

195) 揀: 挑選, 選擇。

196) 膘: 肥肉(多指牲畜)。

197) 轡頭: 馬籠頭。駕馭牲口的嚼子的繩繩。繩繩繞過馬項, 兩端分別繫于銜兩側環上, 呈封閉式半圓狀, 騎者握繩以馭馬。《樂府詩集·橫吹曲辭五·木蘭詩》: 「東市買駿馬, 西市買鞍轡, 南市買轡頭, 北市買長鞭。」

198) 點: 當是“掂(點)”的借字。顧學頤、王學奇《元曲釋詞》卷一: 「掂: 一謂以腳尖着地輕行 … 《西廂記》一本三折【金蕉葉】: “掂着腳尖兒仔細定睛, 比我那初見時龐兒越整。” … 提起腳跟, 用腳尖着地曰掂。字應作點(diān) … 顏師古注: “點, 謂輕蹶之也。” 掂、點均爲點之俗字。或作擲。是也。今北京及南方各地仍以腳尖着地輕行謂之“掂”。(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3, 頁 454)

199) 小行: 小便之異名。又作小解、小遺。王雲路、方一新《中古漢語語詞例釋》: 「小行, 小便。《全晉文》卷24王羲之《雜帖》: “鄙故匆匆, 飲日三斗, 小行四升, 所可憂慮。”又卷27王獻之《雜帖》: “忽動(按: 動指疾病發作)小行多, 晝夜十三四起, 所去多。又風不差, 腳更腫。” … “小行”指小便, 爲六朝俗語。」(吉林教育出版社, 1992, 頁 402)

200) 上: 時。關漢卿《竇娥怨》一 正旦白: 「我三歲上亡了母親, 七歲上離了父親。」(藍立英, 同前揭書, 頁239.)

201) 撒: 只把腳尖伸進鞋內, 拖着走。《西遊記》第三十九回: 「腿下無憂履, 與他一雙僂鞋撒了。」(《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202) 原文 ‘轡頭’은 말의 ‘고삐’를 말함인데, 이에 ‘好轡頭’는 ‘말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딱 맞는 말고삐가 갖추어져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3) 原文 ‘疥’에 대해, 諺解에서는 ‘비루(비루: 개나 말, 나귀 따위의 피부가 헐고 털이 빠지는 병)’라고 풀이하고 있다. 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것²⁰⁴) 같았습니다.²⁰⁵⁾

乙某: 討多少銀子?

얼마나 달라고 하던가요?

甲某: 有人出十五兩銀子。

어떤 이는 은자(銀子) 오십 냥을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乙某: 你爲甚麼不買來? 眞個是好馬麼。

그런데 어찌하여 사오시질 못했습니까? 정말로 좋은 말 같은데요.

甲某: 只²⁰⁶)有那些證候²⁰⁷), 銀子也不勾, 不會買來。

앞에서 말한 그러한 증상도 좀 있고, 돈도 좀 부족하여, 사질 못했습

204) 原文의 '有些撒蹄'에 대하여 諺解에서 '굽ㄷ리미 잇더라'라고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譯語類解》(서울 亞細亞 文化史 刊行, 하권 29쪽)에서 '撒蹄馬'에 대해 '굽ㄷ리는 말(저는 말)'이라고 풀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撒蹄'에 대한 辭書의 用例는 찾을 수가 없지만, '撒'는 '신발에 발끝을 넣고, 질질 끌고 가다(앞의 註 201 참고) 등의 의미도 있으므로, 문맥으로 보아 '발끝을 약간 끌다'의 의미로 풀이를 하였다.

205) 原文 '點의細', '只是小行上運'에 대하여 諺解는 '세가탈호대', '그저 존걸음이 쓰고'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세가탈호대'에 대해 《李朝語辭典》(李昌淳著, 延世大學校 出版部)에서는 '발을 조금 절다'로 풀이하고 있고, 王震 崔宰榮은 「그다지 까다롭지는 않으나, 다만 잔걸음이 느리고」(『朴通事諺解』 譯註(5), 《中國語文論譯叢刊》 第23輯, 08年)라고 번역하고 있다. 《譯語類解·走獸》(서울 亞細亞 文化史 刊行, 하권 29쪽)에서도 '點의馬(가탈호는 말)'와 '細點의(세가탈)'라는 語彙를 볼 수가 있는데, '가탈호는 말', '세가탈에 대하여' 《새우리말 큰사전》(신기철·신용철 편저, 삼성출판사, 1984년)에는 각각 「가탈거리다: 말의 걸음이 순하고 고르지 못하여 탄 사람에게 불편을 자꾸 주다」, 「말이 약간 탈탈거리고 걷는 모양」등으로 풀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本稿는 위의 註 198)번에서처럼 '點을' 掂(발끝을 세우다)의 音借字로 보고, '細'를 '輕微' 등의 의미도 가지므로 '點의細'의 의미는 《새우리말 큰사전》의 풀이가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발끝으로 짝듯이 총총걸음으로 걷다', '발끝으로 경쾌하게(細) 걷다' 등으로 번역을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었던 또 하나의 근거는 《朴通事諺解》 第43話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三個官人的馬, 將三個半分緊躑的頭馬來, 伴當騎的, 五個細點의馬來, 我騎的十分快走的馬將來, 我又先報馬去。」「這的恰將來的馬, 飛也似緊躑, 快走的、點的都有了。」使승이 먼저 驛站도착하여 一行을 위해 여러 종류의 말을 요구하고, 또한 그러한 말을 수령하는 장면이다. 일행을 위하여 타고 갈 마필을 요구하는데, '발을 저는'말과 같은 하자가 있는 말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五個細點의馬'와 '點의'에서의 '點을' 點으로 보고, 또 앞뒤의 문맥으로 보아 '발끝으로 경쾌하게(細) 잘 걷는'말 등으로 새겨야 된다고 본다. 「有九分膘, 好轡頭, 點의細」까지는 '栗色白臉馬'에 대한 칭찬이고, '只是'의 뒤에 나오는 「小行上運, 有些槽疥, 也有些撒蹄」는 '栗色白臉馬'의 평가 절하의 부분인 것이다.

206) 只: 就。

207) 證候: 病情。

니다.

乙某：槽亦有甚麼難處²⁰⁸)？醫他時便是²⁰⁹)。料着你那細詳時，是²¹⁰)買不得馬。將就²¹¹)着買將來，且胡亂騎時怕甚麼²¹²)？萬世不由人計較²¹³)。

비루가 뭐가 어렵습니까? 치료하면 되지요. 그렇게 세세히 보신다면 솔직히 말을 사실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사가지고 와서 대충 타고 다니면 아니 될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사는 따진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 參考文獻 >

原典類

《朴通事新釋·朴通事新釋諺解》，서울대학교규장각.

《老乞大、朴通事諺解》亞細亞文化史(影印本)，1973年.

汪維輝，《朝鮮時代漢語教科書叢刊》(全四冊)，中華書局，2005年.

錢南揚 著，《永樂大典戲文三種校注》，臺灣：華正書局，1990年.

王學奇等校注，《關漢卿全集校注》，河北教育出版社，1990年.

李小強、王小忠注釋，《西廂記》，中國文聯出版公司，1997年.

劉堅、蔣紹愚 主編，《近代漢語語法資料彙編》(元代明代卷)，商務印書館，2002年.

王士點、商企翁(元)，《秘書監志》，百度(인터넷)電子版.

208) 處：用于詞尾，表示境況、地步。《儒林外史》一回：「王冕到了此處，盤費用盡了，只得借個小庵門面屋，賣卜測字。」(許少峯 主編，同前揭書，頁171.)

209) 便是：用于句末，表示肯定。猶就是。元·孟漢卿《魔合羅》第一折：「自家李文道便是。開着個生藥鋪，人順口都叫我做賽盧醫。」(許少峯 編，同前揭書，頁106.)

210) 是：真正，實在。鄭廷玉《後庭花》第一折：「這年紀小的女孩兒是生的好，叫他伏侍老相公。」(許少峯 編，同前揭書，頁1704.)

211) 將就：照顧，寬容。《水滸傳》三六回：「宋太公，你若是曉事的，便把兒子宋江獻將出來，我們自將就他。」(高文達 主編，同前揭書，頁373.)

212) 怕甚麼：有何不可。又作“怕做甚麼”。關漢卿《哭存孝》四 李克用白：「息婦兒也，你也辭我一辭去，怕做甚麼？」

213) 計較：非議，指摘。元·張國賓《羅李郎》第三折：「落得一碗涼漿一陌紙，街坊論說，隣里計較，弟兄笑恥。」(許少峯 編，同前揭書，頁851.)

詞典類

- 張相,《詩詞曲語辭匯釋》,中華書局,1991年。
- _____,《詩詞曲語辭匯釋》,上海古籍出版社,2009年。
- 顧學頤、王學奇,《元曲釋詞》卷一,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3年。
- _____,《元曲釋詞》卷二,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4年。
- _____,《元曲釋詞》卷三,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8年。
- _____,《元曲釋詞》卷四,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0年。
- 劉堅、江藍生 主編,《元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8年。
- _____,《宋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9年。
- 許少峯 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
- 許少峯,《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
- 龍潛庵 編著,《宋元語言詞典》,上海辭書出版社,1985年。
- 高文達 主編,《近代漢語詞典》,知識出版社,1992年。
- 吳士勛、王東明 主編,《宋元明清百部小說詞語大辭典》,陝西教育出版社,1992年。
- 呂叔湘 主編,《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商務印書館,1999年。
- _____,《中國文法要略》,商務印書館,1982年。
- 張惠英,《金瓶梅俚俗難詞解》,社會科學文獻出版社,1993年。
- 《中朝詞典》,中國民族出版社,1986年。
- 《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1991年。
- 中國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纂室編,《現代漢語詞典(修訂本)》,商務印書館,1986年。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現代漢語詞典(修訂本)》,商務印書館,2001年。
- 王鎔、曾明德,《詩詞曲語辭集釋》,語文出版社,1991年。
- 王鎔,《詩詞曲語辭例釋》,中華書局(增訂本),1991年。
- _____,《唐宋筆記語辭匯釋》中華書局(增訂本),1990年。
- _____,《宋元明市語匯釋》中華書局(修訂增補本),2008年。
- 蔣禮鴻 主編,《敦煌文獻語言詞典》,杭州大學出版社,1994年。
- _____,著《敦煌變文字義通釋》,上海古籍出版社,1997年。
- 劉昌惇,《李朝語辭典》,延世大學校出版部,2005年。
- 藍立萸 編著,《關漢卿戲曲詞典》,四川人民出版社,1993年。
- 李法白、劉鏡美 編著,《水滸語詞典》,上海辭書出版社,1989年。
- 張永言 等編,《簡明古漢語字典》,四川人民出版社,1991年。

- 卜鍵 主編,《元曲百科大辭典》,學苑出版社,1991年。
史東,《簡明古漢語詞典》,雲南人民出版社,1985年。
王學奇、王靜竹 撰著,《宋金元明清曲辭通釋》,語文出版社,2002年。
白維國 編,《金瓶梅詞典》,中華書局,1991年。
譚其驤 主編,《中國歷史地圖集》,地圖出版社,1982年。
謝紀鋒 編纂,《虛詞話林》,黑龍江人民出版社,1992年。
楊樹達 著,《詞詮》,中華書局,1990年。
廖均英 編,《全宋詞語言詞典》,中華書局,2007年。
陸澹安 著,《小說詞語語彙釋》,上海錦綉文章出版社,2009年。

著書類

- 呂叔湘著,江藍生補,《近代漢語指代詞》,學林出版社,1985年。
胡安竹等編,《近代漢語研究》,商務印書館,1992年。
馮春田,《近代漢語語法研究》,山東教育出版社,2000年。
梁伍鎮,《老乞大朴通事研究》,태학사,1998年。
太田辰夫 著,蔣紹愚、徐昌華 譯,《中國語歷史文法》,北京大學出版社,1987年。
香坂順一著,江藍生 白維國譯,《白話語匯研究》,中華書局,1997年。
_____, 植田均譯,《水滸詞匯研究(虛詞部分)》,文津出版社,1992年。
江藍生,《近代漢語探源》,商務印書館,2000年。
俞光中、植田均,《近代漢語語法研究》,學林出版社,2000年。
孫錫信,《近代漢語語氣詞》,語文出版社,1999年。
董志翹、蔡鏡浩,《中古虛詞語法例釋》,吉林教育出版社,1994年。
曹廣順,《近代漢語助詞》,語文出版社,1995年。
王雲路 方一新 《中古漢語語詞例釋》吉林教育出版社,1992年。
胡竹安、楊耐思、蔣紹愚 編,《近代漢語研究》,商務印書館,1992年。
蔣紹愚、江藍生 編,《近代漢語研究(二)》,商務印書館,1999年。
北京大學中文系1955、1957級語言班編,《現代漢語虛詞例釋》,商務印書館,1982年。
房玉清著,《實用漢語語法》,北京語言學院出版社,1996年。
呂叔湘主編,《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商務印書館,1999年。
_____,《漢語語法論文集》(增訂本),商務印書館,1984年。
日·青山定雄編,《中國歷代地名要覽》,臺灣:洪氏出版社,1975年。
蔣紹愚、曹廣順 主編,《近代漢語語法史研究綜述》,商務印書館,2005年。

- _____, 《近代漢語研究概要》, 北京大學出版社, 2005年.
- 李泰洙, 《老乞大四種板本語言研究》, 語文出版社, 2003年.
- 傅雨賢 等著, 《現代漢語介詞研究》, 中山大學出版社, 1997年.
- 魏耕原, 《唐宋詩詞語詞考釋》, 商務印書館, 2006年.
- 郭作飛, 《張協狀元詞彙研究》, 巴蜀書社, 2008年.
- 張美蘭, 《近代漢語論稿》, 江西教育出版社, 2004年.
- 陳秀蘭, 《敦煌變文詞彙研究》, 四川民族出版社, 2002年.
- 程湘清 主編, 《宋元明漢語研究》, 山東教育出版社, 1992年.
- 李嵩興 等著, 《元代漢語語法研究》, 上海教育出版社, 2009年.
- 장숙영 옮김, 《번역박통사 (상) 주석》, 한국문화사, 2008年.

論文

- 楊聯陞, <老乞大朴通事裏的語法語彙>, 《東方學志》, 1955年(臺灣).
- 慎鐮權, <老乞大가 반영하는 漢語의 성격에 대하여>, 《中國語文學》 第48輯(2006年).
- 王霞·유재원, <朴通事諺解譯註(1)>, 《中國研究》 第37卷(2006年).
- 최재영·정윤철, <朴通事諺解譯註(2)>, 《中國語文論譯叢刊》 18輯(2006年).
- 王霞·유재원·최재영, <朴通事諺解譯註(3)>, 《中國研究》 第40卷(2007年).
- 王霞·유재원, <朴通事諺解譯註(4)>, 《中國研究》 第42卷(2008年).
- 王霞·崔宰榮, <朴通事諺解譯註(5)>, 《中國語文論譯叢刊》 第23輯(2008年).
- 拙稿, <董西廂與王西廂裏的語氣助詞用例考>, 《中國語文論叢》 第36輯(2008年).
- _____, <近代漢語語氣詞用例考(上)>, 《中國語文論譯叢刊》 第22輯(2008年).
- _____, <老乞大語彙考>, 《中國語文論叢》 第39輯(2008年).
- _____, <老乞大語彙考(二)>, 《中國學論叢》 第25輯(2009年).
- _____, <老乞大語彙考(三)>, 《中國語文論叢》 第41輯(2009年).
- _____, <老乞大語彙考(四)>, 《中國語文論叢》 43輯(2009).
- _____, <老乞大語彙考(五)>, 《中國語文論叢》 44輯(2010).
- _____, <老乞大語彙考(六)>, 《中國語文論譯叢叢》 27輯(2010).
- _____, <原本老乞大語彙註釋(一)>, 《光州大學校 人文科學》 10輯(2010).
- _____, <原本老乞大語彙註釋(二)>, 《光州大學校 人文科學》 11輯(2011).
- _____, <原本老乞大新註新譯(一)>, 《中國語文論叢》 47輯(2010).
- _____, <原本老乞大新註新譯(二)>, 《中國語文論叢》 48輯(2011).
- 이수진, <老乞大處置文의 把/將字研究>, 《中國學》 26輯(2006年).

- 맹주역, <老乞大諺解 諸板本에 반영된 통사규칙 난점의 유형>, 《중국어연구》 42집.
- 맹주역, <老乞大諺解類 諸板本中‘着’의 번역에 관한 연구>, 《중국어연구》 제39권.
- 金美娘, <老乞大 4종판본 전치사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年).
- 鄭旭, <老乞大이 V着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年).
- 鐘焄, <民族史研究中的“他者”視角>, 《歷史研究》 2008年 第1期.

〈中文提要〉

《老乞大》近二万字，分上、下卷。此書以高麗商人來中國經商為線索，用對話的形式，表現道路見聞、住宿飲食、買賣貨物等等，中間插入一些宴飲、治病的段落。《朴通事》的字數近三萬字，約比《老乞大》多三分之一，分成上、中、下三卷。全書用對話或一人敘述的方式，介紹中國社會生活的各个方面，涉及宴會、買賣、農業、手工業、詞訟、宗教、游藝、景物等多項內容。兩書的史料價值，非常之高。正如著名學者楊聯升教授所說：“從史學看，有許多難得的關於元、明兩代風俗事物的記載。從語學看，有很多珍貴的元末明初的口語史料。”從元代到清代的《老乞大》、《朴通事》系列，是研究元代到清代漢語變化寶貴資料。

《朴通事》與《老乞大》同為高麗、朝鮮兩朝人學習漢語的兩部會話教科書。關於二書原著者的生平時代，雖不可詳考，但根據書中文字內容及其他參考資料，仍可大致認定此書的最初編著年代為元代，最初刊行約在公元1346年間(1998年在韓國發現所謂的舊本《老乞大》本子，韓國學者稱之為《原本老乞大》)。傳世的《朴通事》主要有三種：《翻譯朴通事》(上：1517年)、《朴通事諺解》(上、中、下：1677年)和《朴通事新釋》(1765年)。其中《翻譯朴通事》為崔世珍對《朴通事》所作的諺解，這是今天所見最早的《朴通事》板本，可惜已經不全(只存上卷，缺中、下卷)。《朴通事諺解》則是朝鮮顯宗時期邊暹、朴世華等十二人對《翻譯朴通事》所作的修訂。《翻譯朴通事》《朴通事諺解》的漢文部分除少數文字有差異外，內容基本一致，由於《翻譯朴通事》已經不全，所以本譯註採用《朴通事諺解》本為藍本。

崔世珍譯註的《朴通事諺解》(原書後所附《老乞大集覽》和《單子解》，《朴通事諺解》有許多雙行小註，即所謂的“夾註”)一書，是一份“解釋詳明，徵引繁富”的珍貴資料，對研究漢語語言、文化和讀懂原文頗有價值。並且近來韓國、中國、日本等國家的學者，全面而不同角度對這兩系列書進行研究，取得了相當可觀的成績。因此本譯註以《朴通事新註新譯》

爲題目，力求在前人研究的基礎上，希望有所彌補與進一步發展，並給與研究《朴通事》、《老乞大》一系列研究者的小小的推動。

關鍵詞：朴通事、朴通事諺解、朴通事譯註、朴通事新註新譯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6. 29.	2012. 8. 8.	2012. 8. 12.	2012. 8. 21.	2012. 8. 31.